

### ■ 연구원 소식

#### ○ 김건우 상임이사 전주대 박물관장 취임

우리 연구원 상임이사로 지난 2019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김건우 교수(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가 지난 1월 1일자로 전주대 박물관장에 취임했습니다. 1985년 개관한 전주대 박물관과 2014년 문을 연 호남기독교박물관을 총괄하게 된 김건우 상임이사에겐 큰 격려 부탁드립니다.



#### ○ 홍성덕 부원장 전주대 학생취업처장 임명

연구원 부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홍성덕 교수(전주대 문화융합콘텐츠학과)가 오는 2월 1일자로 전주대 학생취업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홍성덕 부원장은 오는 2월부터 전주대 재학생들의 복지와 학생자치,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진로지도까지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링컨의 게티스버그 (Gettysburg) 연설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전임 연구원)



링컨의 명연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으로 유명해진 게티스버그 진입로

때는 1863년 11월 19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A. Lincoln)이 펜실베이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남북전쟁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곳이었기 때문에 링컨은 희생된 군인들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였고 그때 행한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장면을 그린 사실화, 이 그림은 스프링필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아래 글은 게티스버그에서 행한 링컨의 연설문이다. 간단하게 요약 또는 일부만을 발췌할 수 있겠으나, 내용이 그리 길지 않고 링컨의 생각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연설 전문을 소개한다.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는 주로 아프리카인들을 노예화하는 법적 제도이다. 이 노예제도는 미국이 독립하기 이전인 초기 식민지 시절부터 실행되어 왔다. 1776년 독립 선언이 발표될 당시에는 모든 13개의 식민지에서 합법적이었다. 미국은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노예제도는 남북전쟁(1861년 ~ 1865년)이 끝날 때까지 존재했었다.

이에 링컨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노예제도에 대해 변호사 시절부터 폐지를 주장해 왔다. 물론 노예해방에 대한 그의 주장이 남북전쟁을 발발 시키기도 하였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정당하고, 필요한 군사 조치로서, 1863년 1월 이후부터, 남부에서 노예로 잡혀있는 모든 사람을 영구히 해방시킨다."라고 명시함으로써 1863년 1월 1일에 노예해방을 선언하였다.

여기에는 스토크 부인의 저서 「툼 아저씨의 오두막집」이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을 읽은 링컨 대통령이 감동을 받았고 노예 해방을 선언을 결심하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이다.



남북전쟁 시 북군의 진격로였던 그 길을 따라가 보았다.

## ■ 천년 암자에 오르다

고려와 조선을 연 성수산 상이암, 네 번째 이야기 “이성계의 어필각과 여의주봉”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여의주봉과 어필각** 맑은 기운이 넘치는 곳이라서 야무진 봉우리가 작지만 힘차게 솟구쳤다. 왕조의 꾸무이 바로 이곳에서 싹텄다.

이성계와 무학대사 역시 불가분의 '제왕과 국사'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무학대사는 절친한 친구 이성계가 보위에 오를 것을 일찍이 예견하였다. 다음은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꿈풀이 형식의 재미있는 전설 세 꼭지다.

어느 날 밤이다. 이성계가 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집이 무너져 석가래 세 개에 깔리는 꿈을 꾸었다. 무학대사에게 길몽인지 흉몽인지 물어보았다. 무학대사가 대답했다.

“그 꿈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마시오. 석가래 셋에 깔렸다면, 이는 임금 왕조자의 형상으로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꿈이올시다.”

훗날 조선을 개국한 이태조는 함경도 안변에다 보은의 뜻으로 절을 짓고, 이름을 '석왕사釋王寺'라고 하였다. 자신의 꿈을 임금[王]이 되는 꿈이라고 풀었기[釋]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 다른 날이다. 이성계가 벽에 걸려 있던 거울이 떨어져 쟁그랑하고 깨지는 꿈을 꾸었다.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물어보자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다.

“거울이 깨어지는 것을 '파경破鏡'이라 하니, 부부간에 헤어지고 집안에 불화가 생긴다는 흉몽입니다.”

마음이 영 편치 않은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다시 물어보자, 무학대사는 전혀 다르게 대답하였다. “거울이 깨지며 큰소리가 났으니, 장차 크게 호령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명성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느 날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떨어지는 꿈을 꾸고 이성계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꿈을 잘 풀다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꽃이 만발하는 것은 좋은 꿈이오나, 꽃잎이 모두 떨어지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미심쩍은 이성계는 무학대사에게 다시 해몽을 부탁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도 무학대사는 전혀 다르게 꿈을 풀었다.

“그 꿈은 대단히 좋은 길몽 중의 길몽입니다. 왜냐하면 꽃잎이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법이니, 머지않아 좋은 때가 찾아들것입니다.”

고려 말기에 해당하는 1380년 9월 이성계가 남원 땅 운봉의 황산에서 왜구를 섬멸하였다. 대승을 거두고 개선하던 도중에, 마침 무학대사가 성수산에 관한 이야기를 귀띔하였다. 성수산에 찾아가 기도를 올려 산천의 빼어난 정기를 얻으면, 후일에 큰일을 도모할 수있으리라는 가르침이었다.

이성계는 곧바로 성수산을 찾아와 백일기도를 올렸다. 그런데 백일기도가 끝나던 날의 밤이다. 꿈에 용이 나타나서 이성계의 몸을 세 번이나 씻어 주는 것이었다. 이 꿈은 그가 운봉 출전 전후에 곧 석가래 셋을 등에 지었다는 꿈과 함께 옥좌에 오르는 길몽 중의 길몽이었다. 이성계는 그 자리를 삼청동三淸洞이라 이름 짓고, 또 왕건처럼 돌에다가 자신의 글씨를 남겼다.



그가 삼청동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이곳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 삼업三業을 깨끗이 했다고 여긴 때문이다. 삼업이란 불가에서 세 가지 업장業障을 총칭하는 용어다.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각각 분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입으로 짓는 죄인 구업口業, 몸으로 짓는 일체의 죄인 신업身業,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인 의업意業을 가리킨다.

이성계는 등극 후에 암자의 이름을 상이암으로 고쳤다. 하늘의 소리를 들은 암자라고 여겨 그렇게 고친 것이다. 그리고 어필각을 지어 그 안에 자신의 친필을 보관케 하였다. 더불어 한양 땅에 삼청동이란 동네 이름을 남겼다고 한다.

다른 이야기에는 이성계가 가족신도 벗지 않고 백일기도를 드리자 동자승으로 현신한 산신령이“가족신이나 벗고 기도를 드리라.” 라며 꾸짖었다고 한다. 그 잘못으로 이성계는 백일 동안 기도를 올렸지만, 하늘의 계시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3일을 더 연장해 기도를 올리자 마침내 심신이 맑아졌기에, 삼청동이란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어필각 안에는 예의 천연석 비가 모셔졌다. 앞쪽에는 비각碑閣중수비重修碑가 자그맣게 따로 섰다. 비를 향해 기도하는 신도들이 이따금 보인다.

흥미롭게도 성수산 남쪽의 고덕산 자락에는 이성계와 관련해 생겨났다는 지명들이 많다. 대운리垞雲里는 이성계가 상이암으로 백일기도를 드리러 갈 때 하늘에서 구름이 맴돌며 머물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대왕촌大王村이란 지명 역시 이성계 때문에 생겨났다고 하는데, 대왕촌에서는 마을 앞에 다 아예 대왕령촌비大王嶺村碑를 세워 놓았다. 바로 옆의 도인리道引里는 이태조가 기도 드리러 갈 때 길을 내면서 갔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설명이다.

어필각 뒤가 여의주봉이니 예사로운 이름이 아니다. 본래 여의주란 승천하는 용이 입에 물고 있다고 하는 신비의 구슬이 아니던가. 이 구슬에서 용이 부리는 모든 조화가 나온다고 한다.

그리고 용은 임금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용은 한 나라의 창업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의주봉이 바로 왕건과 이성계의 기도에 효험을 발해 나라를 열어 준 곳이다.

여의주봉에 올라가 경내 왼쪽의 낮은 묘사채 뒤편을 바라보면, 작아도 생기 넘치는 지맥 하나가 힘차게 뻗어 내려오는 형상이 보인다. 그 넘치는 활력과 정기는 거대한 바윗돌이 되어 이렇게 봉우리로 솟구쳤다. 하늘을 향해 치솟은 소나무들은 여의주봉이 얼마나 기백 넘치는 자리인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이 산의 소나무들은 유독 여의주봉에서만 우뚝하게 자란다.

사실 성수산의 남쪽 자락은 대체로 음습하다. 그러나 여의주봉은 주변과 달리 믿기 어려운 정도로 밝고 햇볕이 잘 드는 특별한 자리다. 상이암을 향해 오르면서 무겁던 머리가 이곳에 올라와 가벼워지니, 기분마저 상쾌해지는 천하의 명당이다. 아주 훌륭한 기도처다.

여의주봉 주변을 둘러보면 첩첩의 산자락들이 여의주봉을 감싸면서 모두 머리를 조아렸다. 휴양림에서 따로 조성한 왼쪽 위편의 전망대에 올라가 산세를 굽어볼 때 더욱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아무튼 도선국사의 지적대로 이곳은 천자가 조회를 받드는 형상이라는 '천자봉조지상'이다. 이곳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약간 아래쪽에 펼쳐졌다. 평상 하나쯤 펼쳐 놓을 만한 공간인데, 서너 그루의 소나무들로 둘러싸였다. 상이암에서 바람을 쏘이기 위해 의자를 내놓은 곳이기도 하다.

**다음 주는 고려와 조선을 연 <성수산 상이암> 다섯 번째 이야기 “김한태 옹의 편백나무 숲”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